

# 文대통령, 러시아 스푸트니크V 도입 검토

### 매일 백신 수급 상황 점검 러시아 포함 여러 백신 검토 중수분, 백신 동향 모니터링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V'의 도입 가능성을 점검하는 등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22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가 개발한 스푸트

니크V 백신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참모진 건의에 따라 기존 백신 외에 안정성이 확보된 백신 도입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여러 가지 백신을 고려한다는 차원으로, 스푸트니크V도 선택지 중 하나"라며 "대통령이 스푸트니크V만을 특별히 점검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분)

사회전략반장도 이날 기자회견 설명회에서 "신규 백신 허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며 "허가청(식품의약품안전처)이 다수 데이터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어 종합 판단하려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연일 백신 수급 현황을 직접 챙기고 있다. 정부는 상반기 1200만명 1차 접종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하반기 물량 등을 미리 확보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특별방역

검회의에서도 "기존에 도입하는 백신 외에 면역 효과와 안정성이 확인되는 다른 종류의 백신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상황까지 선제적으로 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도 스푸트니크V 도입을 둘러싸고, 이른바 '플랜 비(B)'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스푸트니크V 등 여러 가지 백신의 공개 검증을 청와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개석상에서도 스푸트니크V 도입을 언급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송영길 후보도 21일 TBS 라디오 '김여준의 뉴스공장'에서 "외교 역량을 통해 지금 있는 모더나, 화이자, 노바백스뿐만 아니라 스푸트니크V에 대한 제2의 플랜 비까지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 움직임과 별개로 스푸트니크V 효능과 안정성 등을 문제로 실제 도입은 회의적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러시아는 지난해 8월 스푸트니크V를 세계 최초 코로나19 백신으로 등록했지만 최종 3상 임상 시험을 건너뛰고 승인해 효능·안전성 논란이 일었다.

다만 스푸트니크V 사용을 승인한 전 세계적으로 60여 개국으로 알려져 있으나, 안전성 문턱이 높은 유럽이나 미국·캐나다 같은 북미 국가에서 사용이 승인된 사례는 없다.



지난 2012년 12월28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는 모습.

## “MB·박 사면이 왜 국민통합?”

### “나라망신·창피한 일...내보내야”

#### “사면-국민통합 무슨 관계” 고령층은 사면 ‘강력 찬성’

최근 정치권에서 ‘국민통합’이 이유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서는 긍정론과 부정론이 공존하고 있다.

최근 두 전 대통령의 사면을 촉구하는 건 야권이다. 지난 20일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에게 두 전직 대통령의 석방을 건의해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21일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 “큰 통합을 재고해달라”며 사면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국민 통합 간 관계 자체에 의문을 표하는 시민들이 다수 있었다.

이모(51)씨는 “(유죄가 선고된) 전직 대통령들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과 국민 통합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태극기 부대 등 일부 지지자들은 만족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소수 아니냐. 대다수는 반대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는 “잘못해서 감옥에 갔는데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로 치면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모(44)씨는 “특별사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낮은 만큼 지금 언급하는 건 위험하다”며 “오려려 상황이 더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과 4개월 전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두 전직 대통령의 죄에 대해 사과 의사를 밝

혔는데, 이제 와서 같은 당 의원들이 사면 얘기를 하니 다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시절로 돌아가려는 건가 싶다”고 했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보수에 가깝다고 밝힌 이들 중 일부도 사면론에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자신을 중도보수층으로 규정한 김모(25)씨는 “개인적으로 (사면 주장이) 기존 정치를 답습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여론 통합에 유리할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오 시 장에게 표를 던졌다는 최모(28)씨는 “분명히 전직 대통령이 2명이나 수감돼 있는 것은 좋지 않은 그림이지만, 지난 과오를 진정으로 뉘우치기 보다는 사면을 주장하는 모습에서 약간 반발심이 든다”고 밝혔다.

역시 오 시장을 뽑았다고 한 임모(26)씨는 “사면한다고 여론이 통합된 양을 것 같고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을 당한 경우였기 때문에 (사면에 대한) 반발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70대 이상 고령층 사이에선 사면론 주장이 힘을 받는 측면도 있다. 본인을 70대라고 밝힌 A씨는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감옥 많이 가 있는 나라도 없다. 나라 망신이고 창피스러운 일”이라며 “적당히 하고 내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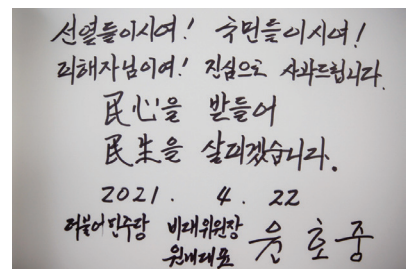
오모(74)씨는 “예전에 DJ(김대중 전 대통령) 때도 노태우·전두환 다 사면했었다”며 “세상에 티끌 없는 사람이 어디있냐. (사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과 기념촬영하는 윤호중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을 예방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輿, 선거 패배 후 ‘첫 박원순 성폭력 사과’...진정성에 의문

### 현충원 찾은 윤호중 “피해자님이여! 진심으로 사과”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뒤늦게 고개를 숙였지만 여전히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

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방명록에 “선열들이시여! 국민들이시여! 피해자님이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민심을 받들어 민초를 살피겠습니다. 2021. 4. 22.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윤호중”

“이번 보궐선거의 발생 이유가 됐던 피해자분들을 언급한 것”이라는 게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의 설명이다.

윤 위원장은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 “우리 당이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마음으로부터 사과를 드리

지 못한 것 같아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그분들을 찾아가거나 뵙자고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신원이 밝혀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적당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재보선 참패 이후 새 지도부를 이끌고 있는 윤 위원장이 당 쇄신 차원에서 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사과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소속 단체장의 성비위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가 선거 패배 원인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관측에도 불구하고 선거 이후야 사과했다는

점에서 한참 실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무공천 당헌’을 바꿔가며 이번 보궐선거에 후보를 냈지만 제대로 된 반성은 없었고, ‘피해 호소인’ 3인방인 남인순·전선미·고민정 의원을 선거 캠프에 영입해 자충수를 둔 바 있다.

윤 위원장이 순국선열과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현장에서 뜬금없이 사과한 것도 진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더구나 ‘보궐선거 발생 이유가 됐던 피해자’라는 설명은 자칫 성폭력 피해자로 인해 보궐선거가 발생했다는 책임전가성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 직통전화 010-2400-7774

☎ 주문팩스 062-946-0053